

지역 매아리

고창군, 태풍 대책회의 개최

고창군이 제18호 태풍 '미탁'이 북상함에 따라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6개 협업부서와 부유면장 등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태풍 대비 긴급 대책회의를 지난 30일 오후 실시했다.

올해 7번째 상륙이 예상되는 이번 태풍은 35~40m/s의 강풍과 많은 강우량을 동반해 바닷물의 파해가 클 것으로 예상돼 정토진 부군수 주재로 관리 분야별로 협조사항을 전달했다.

앞서 고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는 태풍상륙이 예보된 28일부터 29일까지 재난상황실 근무요원을 보강하고 급경사지·절개지·해안가 등 재해취약지역을 긴급 점검을 완료했다.

정토진 부군수는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축대 붕괴, 토사 유출 및 산사태 우려 지역과 하수도시설, 하천 등 재해취약지역에 대해서도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대형 사고가 우려되는 대규모 건설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에도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군민들에게는 바람에 날아갈 수 있는 물건 등을 단단히 고정하고, TV나 라디오 등을 통한 기상정보 청취 등을 비롯해 태풍 특보 발표 시 외출을 자제를 당부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군, 태풍 북상으로
곰소갯길발효축제 축소 진행

곰소갯길축제 추진위원회(위원장 안병관)는 제18호 태풍 '미탁'이 북상함에 따라 축제 일정을 대폭 축소한다고 밝혔다.

추진위원회는 제13회 곰소갯길발효축제를 오는 10월 30일까지 곰소·용도부지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2일부터 태풍 '미탁'의 영향권에 들어가 3일 오후에 동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월 3일 행사 일정을 축소하여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올해 13회를 맞이한 곰소갯길발효축제는 대한민국 명품 전통발효축제로 명품갯길담기, 미물미물 장어잡기 등의 체험행사를 비롯하여 천일염 메고 달리기, 바지락 빨리까기, 찜갈 맛대맛 등 다양한 관광객 참여행사와 초청가수 공연이 펼쳐진다.

추진위원회에서는 태풍의 영향으로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부득이하게 3일은 개막 행사만 진행하기로 행사 일정을 축소했지만, 향후 태풍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판단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4일에서 5일 펼쳐지는 체험행사와 공연 등의 축제 일정은 그대로 진행되어 똑같이 즐길 수 있다고 전했다.

안병관 위원장은 "태풍의 영향으로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행사를 부득이 축소하게 된 것을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며 "일정은 축소됐지만 곰소발효갯길의 맛과 질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욱 알찬 축제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영진 기자



정읍시가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와 지역 현안사업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읍 발전 위해 손 맞잡았다

시·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 정책간담회 개최... 국가 예산 확보방안 등 논의

정읍시는 주요 현안에 대해 정읍 발전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각 정당과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모색하기 위해 정당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

각 정당 관계자와 주요 현안사업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해 시의 발전 방향을 이끌어내고 동시에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협의 과정을 통해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관련해 시는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와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사업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정의당 관계자들과의 정당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유진섭 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급 공무원들과 최낙삼 정읍시의회 의장, 지역구 도·시의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당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시의 주요 현안사업 추진 방향과 국가 예산 확보방안, 시민의 여론과 갈등요인 분석·해결방안을 두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특히, 주요 대형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안전, 환경, 문화, 소통 등 다방면에 걸친 정책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유진섭 시장은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시의 현안사업과 정책사업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논의된 의견들은 놓치지 않고 면밀한 검토 등을 거쳐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준병 위원장은 "시와 정당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간담회가 민생문제와 같은 지역 현안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 내 다양한 여론 수렴을 통해 정읍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각 정당과 지속적인 간담회를 마련해 지역 현안과 주요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정읍=김대환기자

생명존중 문화조성으로 자살률 줄이고, 행복지수는 높이고

고창군, 자살률 도내 최저
도 평균보다 10.5명 낮아

고창군이 '스스로 삶을 버리는 사람이 제일 적은 도시'에 이름을 올렸다. '미세먼지가 가장 낮은 도시', '귀농인이 제일 많이 정착한 도시'에 이은 '군민 행복도시 시리즈' 3탄이다.

고창군은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사망원인통계'에서 10만명당 연령표준화 사망률(지역 간 연령구조 차이 표준화) 중 자살률이 전북도 내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통계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고창군의 지난해 연령표준화사망자중 자살

률은 15.3명으로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가장 낮았다. 전국 평균 22.6명과 도 평균 25.8명보다 각각 7.3명과 10.5명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년(2017년 기준) 대비 15.7명이 줄었다. 이는 지역 전체의 생명존중 분위기 확산과 군민 행복도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주요 요인으로 평가된다.

여기에 단순한 '자살을 예방한다' 보다는 고위험자를 직접 대면하며 위로·격려하는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했다.

앞서 고창군은 음독자살예방을 위해 농약안전보관함과 번개탄보관함을 보급하고 자살도구·수단 판매 전 용도를 묻는 '어따쓰게'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또 생명사랑지킴이와 정신건강지원봉사자 양성교육, 아동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대상으로 자살 및 우울증 예방교육 등 다양한 자살예방사업을 펼쳐왔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촘촘한 복지실현과 생명존중 문화조성으로 자살률 줄이고, 행복지수와 자존감을 높이는 데 고창군민과 늘 함께하겠다"며 "앞으로도 고창군을 나눔과 봉사의 기부천국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은 국제 대기환경 전문기관이 인정한 '대기환경 우수도시', '100세 장수 여르신을 위한 마을 진척을 여는 도시', '그레서 귀농인이 가장 많이 찾는 도시'의 타이틀을 갖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우리문화 바로알기 '앞장'

부안군-한중연, 디지털 부안문화대전 편찬업무 협약

부안군(군수 권익현)과 한국학중앙연구원(원장 안병욱, 이하 한중연)은 지난 30일 부안군청 중회의실에서 디지털 부안문화대전 편찬 업무를 위한 협약식을 갖고 부안군의 역사 및 문화자료를 집대성하고 그 성과를 디지털로 제작해 보존·연구 및 활용하기로 했다.

부안군이 우리문화 바로알기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디지털 부안문화대전은 한국학의 최고 전문기관인 한중연과의 매칭 사업으로 오는 2021년까지 사업비 5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디지털 부안문화대전에는 지리, 역사, 문화유산, 생씨와 인물, 정치·경제·사회·종교, 문화와 교육, 생활과 민속 등 9개 분야에 걸쳐 국문과 영문으로 방대한 부안군 관련 자료가 수록된다.

부안군은 오는 2021년 12월까지 기초자료 수집, 원고 집필 및 교열, 검토, 시스팀 개발, 멀티미디어 제작 등을 거쳐 2022년 1월부터 온라인 서비스를 개설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지난 2015년 부안군지가 편찬된 이후 누구든지 쉽게 접하고 원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돼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을 널리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병욱 한중연 원장은 "서해안의 빼어난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을 간직한 부안군과 손잡고 편찬사업을 진행하게 돼 의미가 있고 교육과 문화적인 측면에서 품격 있는 문화도시임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 출향인, 정읍사문화제 기간 푸근한 고향 방문

정읍시는 제30회 정읍사문화제 개막 일인 지난 28일 정읍시청소년수련관 녹두홀에서 2019 정읍시 출향인 환영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유진섭 시장과 서울(회장 정태학), 부산(회장 최두표), 성남(회장 최창권), 안산(회장 박주경) 지역의 출향인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사)정읍시예향운동본부(이사장 이한욱) 주관으로 열린 환영 행사는 예향운동본부 남독과 장학금 기탁, 기념사와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고향에 대한 사랑과 지역 인재양성에 보탬이 되고자 뜻을 모아 서울(회장 정태학) 300만원, 성남(회장 최창권) 200만원, 부산(회장 최두표)에서 100만원의 장학

금을 기탁했다. 이날 이한욱 예향운동본부장은 "향우회원님들의 고향 정읍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고향을 자주 방문해 정읍의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정읍의 발전과 성장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고향을 사랑하는 깊은 마음으로 기탁해 주신 장학금은 인재양성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며 "정읍이라는 이름이 여러분들의 힘과 자량이 될 수 있도록 정읍 발전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환영 행사를 마친 출향인들은 정읍사문화제 행사장을 찾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고 개막식과 축하 공연을 함께하며 즐거움을 만끽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공모사업 80억원 선정

고창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2020년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대상지로 선정돼 총사업비 80억원(국비 32억원, 도비 4억8000만원, 군비 27억2000만원, 자부담 16억원)을 투자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고품질쌀 유통활성화'는 양곡종합처리장(RPC)을 대상으로 시설 현대화와 비건조·저장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친환경 브랜드쌀 전문 가공시설(현미부 6t, 백미부 5t, 무세미부 4t, 배미부 4t, 포장부 15t)과 건조·저장시설(사일로 100t 2기)을 신축해

고창 쌀의 품질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사업은 내년 3월 착공에 들어가 8월께 준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타품종과 일반벼의 혼입 방지와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으로 브랜드화를 기대하고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현대화 시설을 갖추게 되면 최고 품질의 원료곡 생산과 더불어 국내 쌀 유통의 큰 축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물론, 고창쌀의 제 값 받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The ad features a large image of a bottle of wine and a smaller image of a gift set.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and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There are also several smaller images of gift sets with their respective prices and contents.